



초대석

2011년(제53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김수민

- 1987년 4월생
- 경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북대학교 법대 4년 재학



Q 제53회 사법시험 수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서 700점 만점에 536.86점(평균 58.24점)으로 수석을 차지 하셨습니다. 수석소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A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끄럽고, 믿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제 것이 아닌 것 같고 제 분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고개를 못 들겠네요. 점수 차이도 많이 나지 않는데, 제가 운이 많이 좋은가 봐요.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 조언, 모두 감사합니다.

Q 수석합격의 비결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특별히 비결이라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고 엉덩이 힘이 비결이라면 비결일까요. 시험 칠 때 크게 긴장하지 않는 편이라, 당황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시험을 친 것이 운이 좋아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Q 사법시험을 공부하시게 된 동기, 그리고 1차와 2차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A 우연히 법학과에 입학하였고,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면서 저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사법시험에 도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주변의 격려가 있었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준비는 학회에서 스터디그룹을 만들

어 공부했던게 도움되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준비는 신림동에서 학원을 다니고, 역시나 스터디 그룹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Q 1차와 2차 공부를 하시면서 어려웠던 과목(1차, 2차로 나누어)과 공부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1차 공부를 할 때엔 헌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 많은 암기사항, 그리고 부속법령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헌정사는 두문자를 따서 외웠고, 부속법령은 중요한 법령위주로 외웠는데, 특히 시험 칠 때 즈음 개정이 많이 되어서 고민하다가 요약된 것으로 보고 일부는 포기하는 식이었습니다. 2차 공부할 때도 헌법, 행정법 쪽이 어려웠습니다. 헌법은 핵심정리300을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외우고, 행정법은 일주일에 한번 씩 사례집으로 보충했습니다.

Q 이번에도 사법시험 면접에서 몇 분이 탈락하셨습니다. 면접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책을 한번도 안 보면 떨어진다고 하기에, 같이 합격한 언니와 매일 만나서 2시간정도 질문을 하면서 내용을 훑고, 시사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시사문제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내용을 알아놓고 논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험가에서 면접대비 자료집을 1회독정도 하였습니다.

Q 공부하시는 중에 슬럼프도 있었고, 여러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극복방법은 어떠셨는지요.

A 사실 크게 ‘슬럼프’라고 할 기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3순환 들어가기 전에 공부가 잘 안되었는데, 그 때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구나 하며 가벼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가올 때 밤에 잠이 안 오던 날들이 힘들었는데, 결국 밤낮을 바꿨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Q 판사, 검사, 변호사 중 선호하는 직업과 선호하는 이유 및 향후 되고자 하는 법조인 상은 어떠세요.

A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가장 독립성 있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저는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된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 그리고 현재의 이 결심 끝까지 지키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Q 현재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A 늘 자신감 가지고 힘내라는 말하고 싶습니다. 시험 날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우리 고시생들 너무나 고생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인 모습 그 자체로 박수 받아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좋은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올 거라 생각해요.

Q 감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A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한 우리 가족, 고맙다는 말로는 표현 안 될 것 같네요. 우리 친척들과, 친구들, 일일이 다 말 안 해도 알거라고 생각해. 학회 법사랑, 스터디 언니 오빠들 너무 감사하고, 교수님들께도 감사합니다.

Q 월간 고시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항상 고시생들의 친구 되어주시고, 휴식을 주시고, 격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로운 고시생과 늘 함께해 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문제와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더 큰 발전과 영광을 기대합니다.